

2021년 10월호
Vol. 319

공주 흥미진진

감사는 가을에 스며드는 중

가을 단풍과 계곡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계룡산 감사에서 자신만의 가을여행을 만들어보세요.
빨갛고 노란 단풍의 모습을 보려면 10월 말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지만, 서서히 가을 빛으로 변해가는
산사의 모습도 마음의 위안을 줄 것입니다.
타박타박 가을로 들어가볼까요?

의정 활동 소식

추경예산안 33억원 삭감 수정가결 등 제277회 임시회 폐회

2021년 하반기 업무 보고 청취 및 체육센터 개보수 사업, 마곡사 진입로 정비 사업 등 논의

공주시의회는 8월 20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2일부터 9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기영 부의장의 ‘공산성과 산성시장등 원도심 방문객을 위한 대형 주차 시설 조성 필요’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으로, 2021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32건을 의결했다.

수정가결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14개 사업에서 33억원이 삭감됐고, 주요 내용은 공주국민체육센터 전면 개보수 사업 14억원, 마곡사 영산전 주변정비사업(진입로 정비) 10억원 등이며,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해 차기 재원으로 활용한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23건 중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20건은 원안가결,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했으며, ‘공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등 8건은 원안 가결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고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종운 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마도 반환 촉구 결의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제277회 임시회

경술국치일을 기억하고 선열의 정신을 기리자

경술국치 111주년 민족정신 선양대회 개최

지난 8월 29일 산성시장 문화공원에서는 경술국치 111주년을 기억하자는 의미의 민족정신 선양대회가 열렸다.

이날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합한 지 111주년이 되는 날로 민간 주도의 민족정신 선양대회를 통해 ‘비록 아픈 역사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역사’임을 상기시키고자 공주시 민족정신 선양 위원회에서 주최했다.

이날 행사는 고주환 공주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의 사회로 개회 선언,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자유발언, 결의문 낭독 및 구호 제창 등 식순에 의거 진행됐으며 이종운 의장과 김정섭 공주시장을 비롯해 최훈 도의원, 박병수 시의원, 오희숙 시의원 및 17개 시민단체에서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운 의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경술국치일을 기억하고 되돌아보는 행사를 함으로써, 항일 독립운동 선열의 정신을 기리고 치욕스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정신 선양대회



이종운 의장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는 한국 땅”

대마도시의회 의장에게 반환 촉구 서한 발송 및 대마도 반환 촉구 대표 발의

이종운 의장은 지난 8월 11일 대마도의 한국 반환을 촉구하는 국제우편 서한을 대마도시의회 하츠무라 규조 의장 앞으로 보냈다.

6월 18일 제226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일본의 독도 망언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번 서한문도 그러한 조치의 일환이다.

서한문에서는 “대마도는 해동지도, 세종실록, 대동여지도, 동국여지승람 등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서 제작된 팔도총도에서도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런 역사적 사실 외에도 주민혈통조사 등 과학적 근거를 살펴볼 때 일본의 대마도 불법점유가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대마도시의회에서는 조속히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한편 대마도를 조속히 한국에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의장은 또한 8월 20일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대마도 반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서는 “역사적 기록과 사실, 과학적 근거로부터 대마도는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대마도를 불법으로 강점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에도 불법으로 점유한 영토를 반환하지 않고 있어 이에 우리 문화와 역사, 혈통의 동질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대마도의 반환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마도 반환 촉구 결의안 채택



숨어 있는 역사 ‘명탄서원’ 세상에 나온다

시민예술공간서 8, 9월 유교아카데미 문인화반 졸업작품전 열려

공주시의회는 8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시민예술공간에서 ‘숨어 있는 역사 명탄서원 세상 나들이’라는 제목으로 ‘명탄서원 토요 인문학강좌 제3기 유교아카데미 문인화반’의 졸업(수료) 작품 35점을 전시했다.

이번 전시회는 옛 선인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도 인품을 수양하고, 마음을 치유했던 문인화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친 시민들을 잠시나마 그윽한 묵향의 세계로 안내했다. 명탄서원은 유교 인문학 강좌 등을 통해 지역문화 유산의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주체적인 역사관 확립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시민예술공간 전시



5분 발언

공산성과 산성시장 등 원도심 방문객을 위한 대형 주차시설 조성 필요



박기영
공주시의회 부의장

박기영 부의장(국민의 힘)은 제22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산성과 산성시장 등 원도심 방문객을 위한 대형 주차시설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9일 KBS대전방송에 공주시가 도시재생 성공모델로 전국적인 각광을 받고 있다는 뉴스가 방영된 바 있는데, 이는 지난 10여년간 원도심 곳곳에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과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그리고 골목길 조성 사업 등을 꾸준히 펼쳐온 결과이며, 이제 시가 전국적인 도시재생 선진 사례지로 손꼽히게 되면서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타 지자체의 기관·단체 및 개인 등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각종 자료를 근거로 “올 상반기 동안 광주시 송정동 현장지원센터 주민 등 13개 기관·단체에서 약 110여명이 공주시 도시재생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고, 지난해에도 총 28개 팀 548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으며, 주요 답사 장소는 공주하숙마을, 나태주 풀꽃문학관, 추억의 하숙촌길, 제민천 등으로 시의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산성과 무령왕릉의 세계유산 등재에 이어 공주 원도심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많은 방문객을 불러 모으는 계기가 되고, 이에 따라 이제 원도심이 공주 관광의 새로운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공주 관광 활성화의 청신호라 여겨진다.

그런데 이러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공산성과 산성시장 주변 그리고 원도심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금성동 일대 식당가인 백미고을과 연문광장 회전교차로 주변, 시내버스터미널 주변과 산성시장 일대는 한꺼번에 몰려드는 차량으로 인해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며, 주차장 시설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앞으로 코로나19 정국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런 혼란은 더 가중될 것이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역설했다.

기고문

로컬의 기회는 기술과 함께해야 합니다



정종순
공주시의회 의원

‘로컬의 시대’라는 말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과 좁은 골목길이 주는 정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주시 원도심이 각광 받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마을호텔 개념을 도입한 게스트하우스, 개성 있는 동네 서점들, 작은 갤러리와 공방 거리 등입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은 최근 몇 년 사이 새로 생긴 곳들이고 이 거리를 유명하게 만들어 준 것은 온라인의 힘입니다. 각종 SNS에서 홍보하고 온라인에서 예약을 받고, 내비게이션으로 어디든 쉽게 찾아올 수 있게 된 기술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곳입니다.

전 세계가 온라인이라는 한 공간에서 만나는 만큼 장단점도 크게 나타납니다. 가장 가까운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배달 시장입니다. 무료로 서비스를 시작하며 충분히 시장을 점유한 다음 유료화 정책을 쓰는 것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당연한 수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도한 수수료 등의 문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편리함 이상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흐름은 서울에서 시작해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동시에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카드 수수료 문제 때문에 지역화폐가 생겼듯 전국의 지자체가 공공배달 앱을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 2010년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데 고작 10년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택시나 대리기사를 부를 때는 어떤 앱을 쓰시나요? 8월에 카카오택시 스마트 요금을 5천원까지 올리려던 시도는 택시업계와 소비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2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콜택시 시장의 80%를 독점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자신은 전화로 택시를 부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반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앱이 아닌 전화 주문을 하자는 시민운동이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한 기업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공주시 곳곳에 도로를 깔 듯 공주시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상의 인프라를 깔아야 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공주니까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핑계이고 사실상 절실한 준비입니다.

인구정책에 대해, 15년 동안 225조 퍼붓고도 출산율 0.07%



김경수
공주시의회 의원

‘인구절벽’ ‘인구지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출생아 수가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로 내려앉았습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10년 내 한국에 ‘인구지진(Age-quake)’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2030~40년부터 인구

절벽에 따른 인구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지진은 영국 인구학자 폴 윌리스가 만든 용어로 자연 재앙인 지진보다도 급격한 인구고령화의 파괴력이 훨씬 크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구지진은 사회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이며 이는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는 출산율이 0.07%대로 떨어질 거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출생아가 27만명에 그친 반면 사망자는 30만명으로 출생아수가 사망자에 밀도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출생아는 2017년 40만명 아래로 떨어진 뒤 3년 만에 30만명도 무너져 이미 인구지진의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겠습니다. 이와 달리 노인 인구는 초고속으로 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0년 15.7%에서 2025년에는 20.3%로 20%선을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2060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43.9%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이 울음소리는 그쳐가고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만 가니 진도 9.0과 같은 대재앙이 우리나라에서부터 현실화 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 225조 3천억원이 아무런 효과 없이 허투루 썼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출산이 점점 감소해 인구절벽 위기가 오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이 요청됩니다. 치솟는 집값, 사교육비 부

담, 일과 가정을 위한 시간의 부족, 빈부격차 심화, 육아시간과 방법 등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하는 요인들이 산재한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으로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즐비합니다. 그 가운데 보육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10명 중 6명은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5~54세 미혼, 기혼여성 6천20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3명 중 1명꼴인 35%로 첫 출산 전 56.9%와 출산 첫 해 23.2%에 경력이 단절된 경우가 전체의 80%를 넘었습니다.

출산과 양육을 시작하며 일을 그만두는 여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책의 대전환이 있어야만 급격한 저출산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와 소득의 변화로 선진국으로 진입해 국민의 사고방식과 행동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정책은 20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출산장려금 지급 같은 상징적 정책만 계속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위한 부동산, 교육, 보건 등 정책의 대변화를 기다리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할 시기임을 촉구하며 제언드립니다.

공주시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청년과 여성 그리고 귀농귀촌 정책, 주so지 갖기, 출산 장려 등과 관련하여 평생교육과, 여성가족과, 농촌정책과, 건강관리과 등 매년 700억원 이상의 예산(각 부처별 예산확보 및 지출로 정확한 예산 산출이 어려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출산 장려뿐만 아니라 인구유입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듯 공주시에서 출산하면 영유아의 시기를 거쳐 대학교 졸업 후 취업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획기적 정책 입안을 건의드립니다.

영유아 및 청년, 여성, 인구유입 등 분산돼 집행되고 있는 예산과 부서들의 업무를 총괄관리, 집행하고 업무의 컨트롤 타워의 순기능만 이루어진다면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살기 좋고 행복한 공주시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통 큰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